**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4:18)**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으로 3월 중순인데 눈이 오는 서울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1월 기도제목을 이후에 빠르게 진행된 일들을 나눕니다.

1월 27일 이사하고 예전 살던 집 청소와 보증금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전체 페인트칠을 해서(이곳은 이사 들어 갈 때 상태로 복구함) 열쇠를 넘겨주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짐 정리와 이민국에도 3번 방문으로 주소 이전도 했고, 이사 후 1주일만에 인터넷 연결도 하면서 우선 해야 할 일들은 처리했습니다.

 2월 22일 입국해서 3월 22일 출국입니다. 문제가 생긴 왼쪽 위 어금니 임플란트는 입국 3일전 빠져서 가지고 왔고 통증이 심했던 왼쪽 송곳니는 빼고 아프지 않아 좋았는데, 잇몸과 뼈가 좋지 않아 덧씌우는(브릿지) 치료로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거주 비자를 위한 은행 송금 업무도(매월 일정 금액이 현지 달러 통장에 입금된 잔고증명서용) 완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손가락 통증은 퇴행성관절염, 이비인후과에서는 오른쪽 귀 고막에 구멍이 있고 비염으로 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이 짧아 2차 진료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주 토요일 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S 가정은 S의 친정어머니가 암이셨는데, 2월 8일 돌아가셨습니다. F 부인 가정은 남편이 1주일 3번씩 신장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암이 발견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3월7일 장례식이었다는 소식입니다. N의 친정어머니는 감사하게도 대장암 초기라는 진단으로 2월 7일 수술을 받고 1주일만에 퇴원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급성을 깨달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이들을 권면하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혼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2. **교제하는 영혼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기를**
3. **U 부인의 집(월세, 자가) 송사가 해결되어 제자 양육 A국 자매와 온라인 예배에 합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4.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N과 집을 나누어 사용하는 일과 마음 밭이 좋은 이웃들과 연결되어 교제하며 안전을 주께서 지켜 주시기를**
5. **2025년 농사 관련 지역 선정과 물, 노동력, 생산과 판로 등이 잘 연결되기를**